

#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 7-1번 버스 신설... 혁신도시서 전북대까지 운행 소요시간 50분 단축

전북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전북대학교 학생들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신설노선인 7-1번 버스를 이용할 경우 통학시간이 기존보다 50분 가량 단축된다.

이는 전주·완주 시내버스가 60년 만의 노선개편을 통해 다음달 20일부터는 기존 팔달로 단일축에서 6개축으로 확대되며 따른 것으로, 현재 운행중인 165번 기존 노선에 전북대학교와 만성지구-혁신도시로 이어지는 순환 7-1번 노선이 신설된다.

그간, 혁신도시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해 전북대학교까지 가기 위해 혁신도시-전주대-완산소방서-평화동 꽃밭정에서거리-팔달로-전북대-동물원 구간을 운행하는 165버스를 이용할 경우 총 70분 가량 소요됐다.

하지만, 165번 버스 대신 혁신도시-

만성지구-팔복동-전북대-전주시청-예수병원-박물관-혁신도시 구간을 순환하는 7-1번 버스를 이용하면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7-1번 버스가 신설되면서 시내버스 미운행구간이었던 중화산동 현대아파트 옆 안행로에도 처음으로 버스가 다니게 됐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 전까지 달린 노선에 대한 집중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이번 주 중 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노선개편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순까지 총 40여 페이지 분량의 노선안내도 소책자 15만부를 제작해 동 주민센터에 비치, 각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노선개편 시

행 열을 전부터는 모든 시내버스 승강장에 노선안내도를 부착해 노선개편으로 달라지는 노선을 안내할 방침이다.

노선개편 시행 전부터 약 한 달 간 노선개편 관련 홍보 및 시민들의 건의사항에 응대할 수 있는 전담 안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안내센터에서는 시 시민교통과 직원과 콜센터 직원들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해 근무하게 된다.

완주군에서도 기간선제 우선시행지역인 삼례, 봉동, 이서를 대상으로 마을별 노선도, 환승체계 등 이용방법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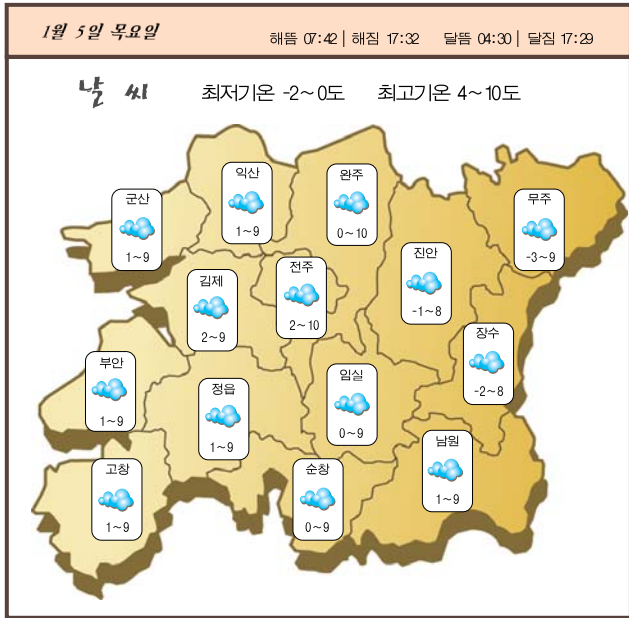
전주에 버스가 운행된 지 60년만에 처음 시행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학생들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은 새학기부터는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노선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그간 팔달로 중심의 남북 단일축으로 운행돼온 시내버스 노선을 △동산동(팔달로)~한옥마을 △동산동(동부대로)~이중리 △혁신도시~서부신시가지~중앙동 △전주역(백제대로)~평화동 △송천동~서부신시가지~평화동 △평화동~한옥마을~우이동 등 총 6개 축을 중심으로 다양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노선개편을 통해 평균배차 간격이 4.6분 감소하고 평균운행거리도 한 대당 12.1km 줄어, 시내버스가 더 빨리 더 자주 다니고, 시민들의 버스 탑승 대기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교육청, 안전체험관 설립 '시동'

전북도교육청이 새해 들어 안전체험관 설립에 팔을 걷었다.

4일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의 학생안전체험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15억원이 선정돼 고창 삼인종합학습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직 교사, 전문경력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연계된 안전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해 올해 9월부터 학생들에게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삼인종합학습장은 고창군 이산면에 위치한 영광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한

지역으로 도교육청은 이곳을 방사능 대피 체험 교육 시설로 특화하고, 지진체험, 소방안전, 응급처치 체험 등 각종 재난 안전체험시설을 갖춰 생애주기별 안전체험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119안전체험관, 전북화학해양수원원, 전북학생교육원, 어린이교통공원(전주, 군산, 정읍, 남원) 등을 안전체험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며 삼인종합학습장의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모두 8곳으로 늘어날다.

## 전주시, 성공창업·취업의 꿈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전용공간 마련

# '전주다움 청년 창업·창직 공동창업지원실' 개소

청년일자리 등 청년문제가 국가적인 해결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주시가 성공창업과 취업의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주시는 4일 병무청 오거리에 위치한 공동창업지원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과 서난이 부위원장, 청년창업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다움 청년 창업·창직 공동창업지원실' 개소식을 가졌다.

공동창업지원실은 창업에 필요한 사무실과 사무기기 등 공동사무요소를 갖추고 있어 창업에 관심을 가진 전주시 청년들의 창업 시제품 전시와 상호 의견 교류의 장, 공간대 형성을 위한 장소 등으로 활용된다.

청년창업자들은 공동창업지원실을 함께 사용하는 동료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초기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창업지원실이 대한민국 대표관광지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만큼, 청년 창업자들은 한옥마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시제품을 홍보·전시할 수 있어 신속한 시장 수요 파악으로 창업 마케팅 전략 수립과 판매촉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공동창업지원실을 통해 △인터 넷방송 △한문뉴스튜디오 △외피규어



제작 △식품전자상거래 △VR관광콘텐츠 개발 등 지역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전통과 예술, IT, 식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입힌 성공 청년창업자들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동창업지원실을 한옥마을과 연계한 청년 창업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공동창업지원실을 이

용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경영과 세무, 회계, 자금 및 법률 등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201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1억 12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 4800만원을 투입해 시장 경쟁력을 가진 청년 창업

가 10명을 육성했다.

시는 공동창업지원실 운영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창업 성공사례를 만들어, 청년창업 붐을 일으키고 새로운 청년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접수

전주시가 문화·여가생활 여건이 열악한 농촌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관리와 문화·학습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전주시는 2017년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시설 등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관리 문화 및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시는 농촌지역에 젊은 층 유입시키고 결혼이주 여성농업인 등을 배려해 만 35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된 지난해에 달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만 20세 이상에서 만 24세(1997.1.1.~1998.12.31.출생)의 기존 여성농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연간 12만원(자담 2만원 포함)이며, 카드를 이용해 스포츠·레저용품, 의류기기 및 유품점 수영장, 요가, 영화관 공연장 서점, 화원, 펜션, 미용실 화장품, 안경점 등 27개 업종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5세 이상에서 만 65세인 여성농업인과 만 20세 이상에서 만 24세기혼 여성농업인이다.

시는 신청인의 거주 지역, 전업농 및 타 법령 유사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후, 오는 3월 6일부터 생생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랑스러운 도시 품격의 전주